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

전은주 부산대학교

- * 이 논문은 제62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6.12.1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자유학기제와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
- III. 자유학기제 수업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 IV.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
- V. 결론

I. 서론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활동¹⁾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구교과로서 국어과 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실시되었다(<http://freesem.moe.go.kr/>).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에서 2012년 11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뒤 교육부(2013)에서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을 ① 최근 선진국들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추세라는 점, ② 창의성,

1) 본고에서 ‘의사소통’은 ‘구어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력, 고등사고력 등 학생들이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고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낮은 상황이라는 점, ③ 학생들이 끼와 잠재력을 발현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공교육 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으로 설명하였다(김달효, 2015: 1). 이후 교육부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42개의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운영을 시작하여 2014년 811개교(25%), 2015년 2,551개교(90%)의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이에에는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관련 연구(김은정, 2013; 홍후조 외, 2013), 자유학기제와 법 관련 연구(손희권, 2013; 이덕난,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사례 연구(김달효, 2015; 김미진 외, 2014; 옥현진, 2014; 이병환·권민석, 2015; 정연희 외, 2016), 자유학기제 관련 인식 연구(김동일 외, 2016) 등이 있다. 이중 옥현진(2014: 80)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문식성 교육 실행 양상에 대한 연구로 국어과의 입장에서 자유학기제 교과 시수 감축과 시행에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문식 활동이 급증했으며 이러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어 수업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을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학습자 참여,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참여,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제 수업 전반에는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 등의 구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교육이 교과 내용 교육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구교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학습자의 실제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자유학기제 수업을 받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수업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유학기제 수업 중 의사소통 활동에서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탐색해 봄으로써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자유학기제 수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점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자유학기제와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

1.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의사소통의 기능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목적을, 학생에게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전인교육의 기회 제공, 자기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량(창의성, 인성, 창의성 등)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의 전환, 공교육 변화 및 신뢰 회복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의 제공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생활을 크게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분된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오전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등의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수업은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전 과정이 학생의 주도적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는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 중심 평가로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다음 <그림 1>은 교육부(2015: 8)에 제시된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림 1>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교육부, 2015: 8)

<그림 1>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자유학기제의 교과 수업, 자유학기 활동의 전반에 강조되는 것은 학습자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발달과 성장이다. 교육부(2015)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참여와 활동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권장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는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 학습자 간의 실제 말하기와 듣기로 진행되는 구두 의사소통이 거의 대부분 주어진다는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토론은 그 자체가 구두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문제해결이나,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은 이

2) 토론이 의사소통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교육부(2015)에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 둘을 함께 제시한 것은 층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리한 교수-학습의 과정에 모둠원 간 토의, 대화 등이 필요하다. 또 직업 탐방과 같은 활동의 경우는 학습자와 전문가 간의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밖에 교수-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반 전체와 공유하기 위해서 발표 역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자유학기제의 교과 수업이나 자유학기 활동에서 학습자가 토론, 토의, 대화, 면담, 발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는가는 활동 과정의 효율성과 활동 결과의 질,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느끼는 효능감, 수업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³⁾ 자유학기제에 영향을 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의 ‘보고’를 들고 있다. Jeffers(2013)에서는 학습자가 개별적 혹은 집단적 보고를 하면서 체험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자신의 꿈, 열망,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김미진 외, 2014: 235). KEDI(2015)에서 학습자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자기 표현력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 수업에 사용된 의사소통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즉, 학습자가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론, 토의, 대화, 면담, 발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의사소통 수행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므로 수업에서 원래 목표로 하였던 것을 성취하는 것과 별도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여러 번 실제 의사소통 수행을 하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된다. 그러므로 학습의 도구로서 의사소통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학습자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토론, 토의, 발표, 대화, 면담 등은 구두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대표적 담화 유형이다.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이들 담화 유형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교육 목

3) 교육부(2015: 3)에서는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결과 참여·활동 중심 수업,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로 학교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대부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시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에 나타난 지도 내용과 2018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에 나타난 담화 유형별 지도 내용의 위계를 살펴보면 중학교 1-3학년군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과정에서 배운 담화 유형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담화 유형에 대한 학습의 폭과 수준을 확장하고 있다.⁴⁾ 그러나 중학교 1-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경우,⁵⁾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중학교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 성취기준 12개 중 2개 정도를 학습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각각의 담화유형별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가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토론, 토의, 면담, 대화, 발표를 사용하는 그 자체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이러한 담화 유형을 해당 교수-학습에서 의도한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활동할 수 있게 해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⁶⁾ 현재 국내 연구 중 자유학기제 수업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4) 이에 대해서는 줄고(2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1학과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세 학기 중에서 학교장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학기 선택하는데, 설문 조사 결과 학부와 교사는 1학년을, 학생은 2학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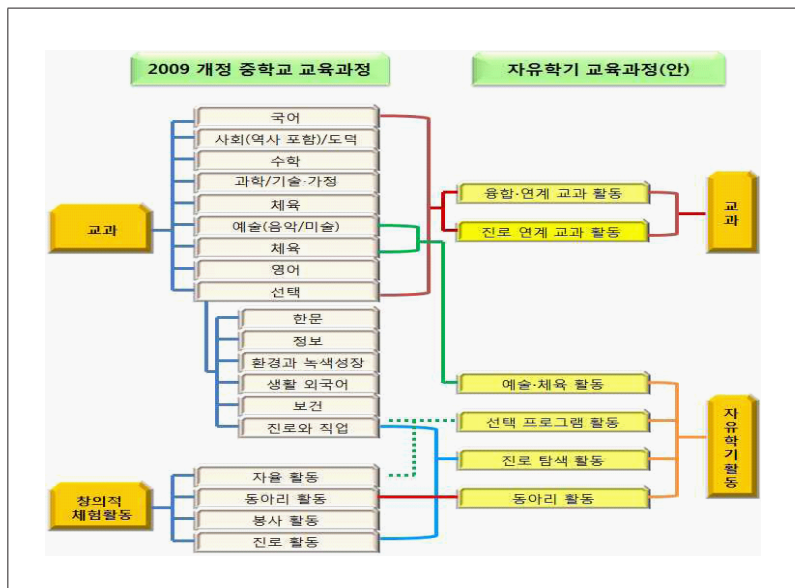
6) 국어과의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에 필요한 담화 유형에 대하여 체계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이를 잘 사용하게 된 후 자유학기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혹은 배우지 않은 담화 유형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활동 이전 해당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 학습자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구두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수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달효(2015)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중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바 있는데 조사 내용 중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된 문항이 일부 있다. 김달효(2015: 194-195)의 조사에 따르면 ‘때로는 학생들이 무분별한 발표를 하여 수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함’에 대하여 평균 3.4, 표준편차 0.96으로, ‘모둠활동 때 마주 보고 앉아서 친구들끼리 소란스러운 면도 발생함’에 대하여 평균 3.8, 표준편차 0.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구두 의사소통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문제점

자유학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기존 일반 학기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2015: 11)에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유학과 일반 학기의 연계를 통한 꿈·끼 교육의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그림 2>는 일반 학기의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2>에서 살필 수 있듯이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분되며 ‘교과’ 수업은 ‘융합 연계 교과 활동’과 ‘진로 연계 교과 활동’으로 운영된다. 즉,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과’ 수업에서 교과 간의 융합 활동과, 교과와 진로를 연계한 활동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 ‘자유학기 활동’은 ‘예술·체육활동’, ‘주제 선택 (프로그램)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존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진로와 직업’ 과목을 융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현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2〉 일반학과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비교(정영근 외, 2014: 212)

그러나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를 자유학기 특성에 맞게 수업하면서 이와 함께 예술·체육활동, 주제 선택 (프로그램)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과 같은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수업 시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유학기 활동’을 위한 시수는 현 교육과정이 고시될 때 정해진 ‘교과’의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교육부(2015: 11)에서는 자유학기 활동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를 활용하고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170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여건에 따라 교과(군)별 배당된 시간의 20% 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51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김미진 외(2014: 237-238)에서는 2013년의 전국 42개의 연구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시범 적용을 한 후 제출한 보고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공통과정에서 필수교과의 시수를 전체 시수의 64.4%로 대폭 감축하였고 자율과정의 시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에 해당하는 시수를 대폭 증가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학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어와 도덕, 기술·가정의 감축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학과 영어의 감축 비율이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옥현진(2013: 72)에서도 2013년도 연구학교 22곳의 운영 보고서와 2014년도 연구학교 10곳의 운영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전체 응답 대상 학교 중 50%의 학교에서 국어 수업 시수를 감축했으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65.6%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자율학기 활동에 필요한 수업 시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수 감축이 가장 큰 교과가 국어과이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국어과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옥현진, 2014: 62).

이처럼 자율학기제로 인하여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어과 시수 감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시수 감축으로 인하여 교사가 교과 수업 진도에 부담을 느끼게 한다. 자율학기제 취지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이후 주당 5단위의 국어 수업이 적게는 4단위로, 많게는 2단위로 시수가 감축되었다. 시수가 감축된 상황에서 진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로 연계 교과 활동’, ‘융합 연계 교과 활동’을 성취기준과 연계를 시도하더라도 일반 교육과정 하의 교과 수업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수-학습하는 것과 다르므로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다.

둘째, 시수 감축으로 인하여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할 경우 현재 교과서와 내용이 맞지 않는다. 현재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는 2013년 핵심 성취 기준⁷⁾이 개발되기 이전,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2011년 고시)에 제

7) 핵심성취기준은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각 교과목에서 추구하는 교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다루는 성취기준’으로 개념화 될 수 있고 이는 핵심성취기준이 아닌 ‘일반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성취기준이기도 하다(가은아 외, 2013: 13).

시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구현된 것이다. 핵심 성취 기준은 일반 성취 기준을 수정, 변형, 가감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을 할 경우 현재 국어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내용을 대폭 삭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해야 한다.

셋째, 핵심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더라도 중요한 성취기준을 교수-학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은아 외(2013: 16)에 따르면 핵심 성취 기준의 선정 원리로 ‘교육 목표와의 부합성, 교육 내용의 중요성, 교육 내용의 연계성, 교수-학습 활동의 실행 가능성’ 등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성취 기준은 필수적 내용, 포괄적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중요하더라도 필수적, 포괄적 내용이 아닌 것은 누락될 수밖에 없다.

넷째, 시수 감축으로 인하여 언어 사용 지식을 적용하여 수행해 볼 수 있는 활동의 기회가 줄어든다. 듣기·말하기 영역은 학습자의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수 감축으로 진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수행의 경험을 부여하기 어렵다. 특히 듣기·말하기 영역의 경우는 면대면의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담화 유형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이를 충분히 수행해 볼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는데 이처럼 충분하지 않은 시수에 핵심 성취 기준 중심의 수업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을 지식 중심 수업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시, 시수 감축으로 인해 국어과 교육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소통 방법을 교수-학습하는 도구교과로서 능동적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III. 자유학기제 수업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

1. 조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재 자유학기제 수업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수업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적용하고 있어 2016년 12월 현재 조사 대상 중학교 1학년생은 지난 8월말부터 자유학기를 적용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10개 중학교에서 한 학교 당 1학년 2개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총 525명이 유효한 응답을 하였다. 학교명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1〉 조사 대상

학교	조사대상(명)	비율(%)	성별	조사대상(명)	비율(%)
A	51	9.7	남	282	53.7
B	54	10.3	여	243	46.3
C	54	10.3	합	525	100
D	59	11.2			
E	37	7.0			
F	53	10.1			
G	54	10.3			
H	57	10.9			
I	51	9.7			
J	55	10.5			
합	525	100			

자유학기제 수업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수업에서의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의사소통 능력 신장 정도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의사소통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의 네 범주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1-15번은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으며, 의사소통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인 16-20번은 학습자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표 2〉 조사 내용

내용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1. 토론 수행 기회 증가
	2. 토의 수행 기회 증가
	3. 발표 수행 기회 증가
	4. 면담 수행 기회 증가
	5. 대화 수행 기회 증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6. 토론 능력 향상
	7. 토의 능력 향상
	8. 발표 능력 향상
	9. 면담 능력 향상
	10. 대화 능력 향상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11. 토론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12. 토의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13. 발표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14. 면담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15. 대화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의사소통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16. 토론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17. 토의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18. 발표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19. 면담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20. 대화 수행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

선다형 문항의 통계분석은 SPSS 16.0을 이용하였다. 모수적 검정은 평균의 비교는 Student t-test 또는 ANOVA test를 활용하였고, 비모수적 검정은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두 변수 간의 관련성 검정은 Spearman's correlation test를 활용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학교별로 학습자의 반응을 정리하고 각 반응에 대하여 문장 단위로 핵심 의미를 추출한 후 핵심 의미를 종합하여 유형 분류를 하였다. 학습자 반응에 대한 분석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분석 결과를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계량화하였다. 이후 학습자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 유형을 학교 구분 없이 모두 통합하고 반응 유형별로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2. 선다형 문항의 조사 결과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의사소통 능력 신장 정도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표 3>과 같다.

<표 3> 선다형 문항의 응답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평균	4.3	4.5	4.4	4.1	4.6	4.2	4.2	4.2	4.1	4.4	4.4	4.4	4.4	4.3	4.4
표준편차	0.9	0.8	0.8	1.0	0.7	0.9	0.9	0.9	1.0	0.9	0.8	0.8	0.8	0.9	0.8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항1-15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이 모두 4.1 이상으로 나타났다. 문항1-5의 응답을 보면 학습자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 모두 그 이전보다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반응하고 있다. 또 문항6-10의 응답을 보면 이러한 실제 수행 경험 과정에서 학습자는 각 담화 유형에 대한 자신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11-15의 응답을 보면 학습자는 각 담화 유형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을 더 배우면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들 문항 중 면담에 대한 내용인 4, 9, 14가 다른 담화 유형에 대한 내용보다 평균값이 낮은 것은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면담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담화 유형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⁸⁾

전체 조사 대상자가 선택형 문항 중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로 반응한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반응에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비교한 것은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한 비율(%)

내용		전체	남	여	p
범주1: 의사소통 수행 기회 증가	1. 토론 수행 기회 증가	53.9	59.9	46.9	0.044
	2. 토의 수행 기회 증가	62.1	67.4	56.0	0.066
	3. 발표 수행 기회 증가	58.5	67.4	48.1	<0.001
	4. 면담 수행 기회 증가	43.8	51.1	35.4	0.001
	5. 대화 수행 기회 증가	65.7	71.6	58.8	0.014
범주2: 의사소통 능력 신장	6. 토론 능력 향상	47.8	54.3	40.3	0.002
	7. 토의 능력 향상	49.1	56.7	40.3	0.002
	8. 발표 능력 향상	49.0	57.1	39.5	0.001
	9. 면담 능력 향상	43.6	48.9	37.4	0.013
	10. 대화 능력 향상	54.1	60.6	46.5	0.002
범주3: 의사소통 학습 필요성 인식	11. 토론 학습 필요성 인식	57.3	64.2	49.4	0.001
	12. 토의 학습 필요성 인식	57.1	61.3	52.3	0.014
	13. 발표 학습 필요성 인식	57.9	64.5	50.2	0.001
	14. 면담 학습 필요성 인식	54.5	61.0	46.9	0.01
	15. 대화 학습 필요성 인식	59.0	65.2	51.9	0.005

p : 남녀 간 비율 비교, chi square 분석

8) 이에 대해서는 3.3의 기술 참조.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담화 유형별로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수행 기회가 많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대화(65.7%)>토의(62.1%)>발표(58.5%)>토론(53.9%)>면담(43.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조사 대상 학습자가 이전 보다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의 실제 수행 기회가 많아졌다고 반응하는 것을 보면 자유학기제 수업을 전면 시행한 첫 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수업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경험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이 범주에 대한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는 대화(71.6%)>토의(67.4%)=발표(67.4%)>토론(59.9%)>면담(51.1%)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대화(58.8%)>토의(56.0%)>발표(48.1%)>토론(46.9%)>면담(35.4%)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1 - 문항5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로 반응한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응은 토의에 대한 문항인 2번 이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담화 유형별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면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대화(54.17%)>토의(49.1%)>발표(49.0%)>토론(47.8%)>면담(43.6%) 순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대화(60.6%)>발표(57.1%)>토의(56.7%)>토론(54.3%)>면담(48.9%)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대화(46.5%)>토의(40.3%)=토론(40.3%)>발표(39.5%)>면담(37.4%)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6 - 문항10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로 반응한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응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두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인 문항11 - 문항15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대화(59.0%)>발표(57.9%)>토론(57.3%)>토의(57.1%)>면담(54.5%) 순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대화(65.2%)>발표(64.5%)>토론(64.2%)>토의(61.3%)>면담(61.0%)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는 토의(52.3%)>대화(51.9%)>발표(50.2%)>토론(49.4%)>면담(46.9%) 순으로 나타났다. 문항11 - 문항15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로 반

응한 비율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반응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녀 간에 응답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문항2를 제외한 전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로 대답한 비율이 남자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남자가 거의 모든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로 대답한 비율이 높았던 원인이 혹시 답변의 성향에 있어 남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극단의 표현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다. 이에 남녀 공학인 4개 학교만을 따로 분석해 보았을 때는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비율이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동일한 학교 내에서는 남녀 간에 “매우 그렇다”로 답변한 비율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전체 대상 525명 중에서 남녀 간에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남학생의 답변 특성보다는 학교 간 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담화유형별 구두 의사소통 수행 경험의 증가와 해당 담화유형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 해당 담화유형 학습 필요성 인식에 대하여 응답 간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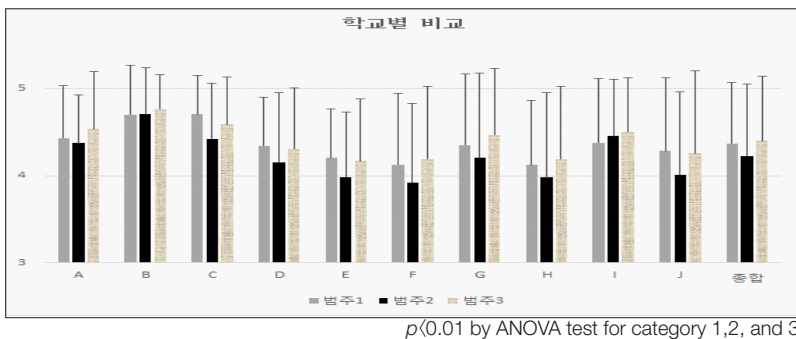
<표 5> 문항별 응답 간 상관관계 조사 결과 (Spearman' rho value)

	6번	11번	7번	12번	8번	13번	9번	14번	10번	15번
1번	0.67*	0.61*								
6번		0.70*								
2번			0.63*	0.67*						
7번				0.70*						
3번					0.71*	0.66*				
8번						0.70*				
4번							0.76*	0.65*		
9번								0.68*		
5번									0.67*	0.60*
10번										0.66*

*p<0.01 by Spearman's correlation test

〈표 5〉와 같이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의 5개 담화유형 각각에 대하여 수행 증가와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학습자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담화 유형별 수행 경험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이러한 경험의 증가로 인하여 담화 유형별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자는 해당 담화 유형의 수행 방법에 대하여 학습을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 수업 실시로 중학교 학습자가 담화유형의 실제 수행 경험이 늘었다는 점은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관점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초등학교 6년간의 국어과 교육을 통해 익힌 구어 의사소통 방법을 실제 사용해 봄으로써 담화 수행에서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인식해 볼 수 있고 해당 담화 수행 방법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므로 이후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강한 내적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문항의 내용 범주별 반응을 학교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범주별 학교 간 응답의 차이

〈그림 3〉에서 살필 수 있듯이 세 범주별로 학교 간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범주1에 대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C학교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 H학교 간에 각 범주별로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최상위와 최하위 학교 간 범주별 비교(C와 H 학교 비교)

	C 학교	H 학교	p
범주1	4.70 ± 0.45	4.12 ± 0.73	〈0.01
범주2	4.42 ± 0.63	3.98 ± 0.96	〈0.01
범주3	4.59 ± 0.54	4.18 ± 0.83	〈0.01

통계분석 : Student t-test

〈표 6〉에서 살필 수 있듯이 세 범주 각각에 대하여 두 학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와 수행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의사소통 학습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이 결국 개별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간에 범주별 반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교 간 학력의 차이, 교육과정의 차이, 교사의 교수 능력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연구만으로는 밝히기 어려우므로 추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서술형 문항의 조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가 담화 유형의 수행에 어떤 어려움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문항16-20에 구체적으로 쓰게 하였다. 학습자가 서술형으로 답한 내용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핵심 의미를 추출하여 유형화한 후 학습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학습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1) 토론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

학습자의 토론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총 201회였으며,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의견 충돌 시 감정적 반응(37회)’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무임승차, 책임감 없는 동료 등 비협동적 반응(26회)’, ‘반박, 설득하기 어려움(17회)’, ‘장난치거나 잡담하기(17회)’ 등이 있었다.

- 의견 충돌 - 태도, 감정적(37)
- 무임승차, 비책무성, 말을 안 함(26)
- 반박, 설득하기 어려움(17)
- 환경 - 장난, 잡담(17)
- 주장, 생각 표현 어려움,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말함(16)
- 준비가 부담이 됨, 과제 부담(11)
- 자신감 결여(11)
- 토론 수업 없음, 경험 부족 (11)
- 논제 이해 어려움(8)
- 시간 부족, 시간 많이 걸림(7)
- 조사방법 어려움(6)
- 규칙 모르겠음, 토론 방법 모르겠음(5)
- 평가 어려움, 비판적 듣기(5)
- 경청 없음(2)
- 교사의 과도한 개입(2)
- 기타(13) 수업 목표 이해 못함. 모둠 간 능력 불균형 등
- 없음(7)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반박이나 설득하기 어려움’, ‘주장, 생각 표현 어려움’, ‘논제 이해 어려움’, ‘규칙 모르겠음’ 등과 같이 토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보다 의견 충돌 시 감정적 의사소통 태도와 무임승차, 비책무성, 비협력적인 태도로 인하여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2) 토의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

토의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총 149회였으며,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의견충돌 시 감정적 반응(48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무임승차, 비책무성, 비협력(20회)’, ‘떠들기(19회)’였다.

- 의견충돌 시 감정적 반응(48)
- 무임승차, 비책무성, 비협력(20)
- 떠들기(19)
- 의견 표현 어려움, 내용 정리해서 말하기 어려움(9)
- 토의 방법 모름, 친구가 몰라 힘들, 발표 기회 뺏김(9)
- 자신감 결여(9)
- 토의 없음, 경험 부족(7)
- 이해 부족, 이상한 의견, 생각하기 힘들, 의견 종합(6)
- 시간 많이 걸림(6)
- 기타(4) - 하기 싫었음, 안 친한 친구와 말하기 등
- 없음, 장점(관계 좋아짐)(4)
- 준비 부담(2)
- 경청 (2)
- 평가, 비판적 듣기 (2)
- 반박 (1)
- 진행 빠름(1)

토의 수행에서의 어려움은 ‘의견 표현의 어려움’, ‘토의 방법 모름’과 같이 토의 수행의 지식과 기능적인 문제보다 의견 충돌 시 감정적 의사소통 태도와 무임승차, 비책무성 등 비협력적인 태도로 인하여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앞서 토론 수행에서의 어려움과 유사한 반응으로 구두 의사소통이 참여자 간 협력과 감정을 조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사소통 태도가 기반이 되지 않고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나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발표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

발표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총 136회였으며,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자신감 부족(39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발표 능력 부족, 목소리 작음, 내용 배열(17회)’, ‘자료 조사, 발표 자료 준비(10회)’, ‘무임승차, 서로 안 하려고 함, 비협력(10)’이 나타났다.

- 자신감 부족(39)
- 발표 능력 부족, 목소리 작음, 내용 배열(17)
- 자료 조사, 발표 자료 준비(10)
- 무임승차, 서로 안 하려고 함. 비협력(10)
- 기회 놓침, 소수만 기회 독점(9)
- 경청 없음, 분위기 안 좋음, 소란(9)
- 발표 없음, 발표 경험 부족, 시간 부족(7)
- 내용 이해 못함(6)
- 발표가 많음(4)
- 생각이 안 남(4)
- 강제로 발표하게 해서 더 싫음(4)
- 학습 부족(2)
- 의견 불일치(2)
- 기타(12)
- 없음(1)

발표는 청중 앞에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의사소통적 특징으로 인하여 수행 경험이 적거나 기능이 부족할 경우 화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며 성공적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된다. 다수의 학습자가 ‘자신감 부족’, ‘발표 능력 부족’ 등을 수행의 어려움으로 들고 있다는 것은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가 발표를 해보게 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자신 있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면담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

면담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총 43회였으며,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면담 안함, 경험 부족(11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면담 방식 부담-직접 만나기(6회)’, ‘고민 말하기, 표현 힘들(4)’이 나타났다.

- 면담 안함, 경험 부족(11)
- 면담 방식 부담(직접 만나기)(6)
- 고민 말하기 힘들, 표현 힘들(4)
- 방법 모름(3)
- 피면담자 비협조(3)
- 모둠 비협조(2)
- 과제 부담(2)
- 부끄러움 - 자기노출(2)
- 시간부담(1)
- 내용 이탈(1)
- 절차 복잡(1)
- 떠돌(1)
- 문제 없음(1)
- 기타 (너무 먼 미래), 그냥 힘들(5)

면담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보면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다른 담화 유형에 비하여 면담이 절대적으로 적게 수행이 되며 면담을 수행하더라도 내담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대화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

대화 수행에서의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한 반응은 총 117회였으며,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의견 충돌(42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떠돌, 장난, 진지함 결여(18회), 비협조-대화를 안 함, 이

기적, 자기말만 하기 등(11회)', '주제 이탈(11회)'이었다.

- 의견 충돌(42)
- 떠돌, 장난, 진지함 결여(18)
- 비협조(대화를 안 함, 이기적, 자기말만 하기)(11)
- 주제 이탈(11)
- 낮가림, 비적극적(함반할 경우, 친하지 않은 친구)(10)
- 문제 없음(3)
- 배려 없음(이야기 못하는 친구)(3)
- 과제 부담(2)
- 비속어, 기분 나쁜 말(2)
- 방법 미숙(2)
- 경청 없음(2)
- 갈등, 오해(1)
- 기타(하고 싶지 않은 수업에 들어감, 힘들, 성적 걱정, 대화 능력 향상 안 됨)(10)

주어진 화제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말하고 듣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이 아니므로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화 수행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에 '의견 충돌', '떠돌, 장난, 진지함 결여', '비협조' 등이 많다는 점은 많은 학습자들이 대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등의 태도가 언어 수행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 간에 얼마나 효과적인 구어 의사소통을 하였는가는 일차적으로는 수업의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학

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 간의 친밀감 향상, 학습자의 사회성 발달 등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문제점과, 자유학기제 수업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을 위하여 향후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 면담을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에 교수-학습할 수 있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면담 교수-학습은 초등학교 5-6학년에 이루어지므로 현재 중학교 1학년은 면담에 필요한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면담이 중 1-3학년의 성취기준이어서,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인 김창원(2015: 611)에서는 ‘성취기준의 학년별 배당’에 면담에 관한 성취기준을 중학교 1학년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1학년에 배치를 권장하였으나 학기까지는 정하지 않았고, 권고의 수준이었으므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계획할 때 국어과 교사의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시행되고, 국어과 교과서의 면담 교수-학습도 1-2학기에 나온다면 1학기초 이동하여 수업을 하거나 최소한 1학년 2학기 초반에 학습을 하여 학습자가 면담에 대하여 일반적 지식과 기능, 태도를 갖춘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면담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듣기·말하기 영역의 태도 교육을, 현실을 고려하고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 사례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실행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구어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느꼈던 어려움 혹은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의견 충돌 시 감정적 반응’이다. 특히 이것은 토론, 토의, 대화의 수행 모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이다. 토론은 담화 유형 특성상 의견이 서로 갈릴 수밖에 없으며, 토의, 대화 역시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가 자신과 입장이 다른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고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교자 토론, 토의를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수행에서는 의견 충돌 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보다 감정적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설문 응답 중에는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다툼, 비난, 관계 악화 등의 내용도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적 대처가 필요하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토의에서 의견 조정하기’가 5-6학년군의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에 제시되어 있다. 듣기·말하기의 태도에 대한 교육은 ‘바르고 고운 말 사용(1-2학년), 예의를 지켜 듣고 말하기(3-4학년), 공감하며 듣기(5-6학년), 배려하며 말하기(중 1-3학년), 담화 관습의 성찰(고1)’의 위계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 교육의 내용과 계열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목적에 따른 담화 유형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 교육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수행은 어렵다.

셋째,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책임성을 강조하고 이를 평가에 실제 반영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구어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느꼈던 어려움 혹은 문제점으로 동료의 무임승차, 비책임성, 장난, 잡담 등 비협력적 행동을 꼽았다. 구두 의사소통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협동학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학습자의 개별 활동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활동 중심 수업은 협동학습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학습자가 상호책임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국어과 의사소통 활동에서 강조하고 상호점검표 등의 장치를 두어 과정 평가에 실제 반영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 학습자가 체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에서 학습자가 수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우호적인 구어 의사소통 수행 환경 조성 and 교사의 긍정적 피드백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자신감 결여는 구어 의사소통에서 적극성, 개방성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화법 교육 이론, 국어과 교육과정 등에서 이에 대

하여 강조해 오고 있으나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구어 의사소통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이러한 경험이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 전반에서 적극적인 구어 의사소통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담화 유형을 사용해 볼 수 있게 국어과와 진로 연계, 교과 연계 활동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면담을 실제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 이에 따라 학습자는 면담 수행 능력 신장에 대한 인식도 담화 유형 중 가장 낮았으며,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도 가장 낮았다. 즉, 수행 경험의 양과 수행 능력 신장에 대한 인식, 학습의 필요성 인식은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특정 담화 유형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관점에서 자유학기제 교과 활동을 구성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

여섯째,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 교육의 계속성 구현과 핵심 성취 기준 중심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 국어과 시수 감소로 인한 진도 부담, 활동 기회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교과 수업 계획과 자유학기 운영 계획을 구성할 때 국어과 성취기준 중 구현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융합 연계 교과 활동, 진로 연계 교과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실현할 수 있게 구성한다. 이때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토론, 토의, 발표, 면담, 대화의 수행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하기 전 이에 대한 최소의 기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현 상황에서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유학기제 수업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면 국어과 시수가 감축이 되고 이로 인하여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맞지 않음, 중요한 성취기준의 누락, 언어 수행 기회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습자가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가 증가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며, 의사소통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응답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은 학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의사소통 활동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토론, 토의, 대화의 경우 ‘의견 충돌 시 감정적 반응’을, 발표는 ‘자신감 부족’을, 면담의 경우 ‘경험 부족’을 들었다.

국어과는 도구교과로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체험과 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권장하는데 그러한 교수-학습 방법은 대개 학습자 간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학습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실제 구두 의사소통의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반복적 수행 경험이 효과적 수행이나 수행 능력의 신장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국어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면담을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에 교수-학습할 수 있게 재구성하고, 듣기·말하기 영역의 태도 교육을 사례 중심,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 구어 의사소통의 상호책임성을 실제 강조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하고, 학습자가 수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교사의 긍정적 피드백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 밖에 학습자가 다양한 담화 유형을 경험할 수 있게 국어과와 진로 연계, 교과 연계 활동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 교육의 계속성 구현과 국어과 시수 감소로 인한 학습 결손, 진도 부담, 활동 기회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유학기제 수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 본 논문은 2017. 2. 10. 투고되었으며, 2017. 2. 14. 심사가 시작되어 2017. 3. 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가은아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국어과 핵심 성취기준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No. CRC 201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교육부.
- 김달효(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179-20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동일 외(2016),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원들이 인식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30(2), 345-371, 한국교육심리학회.
- 김미진 외(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2), 215-241, 한국교육과정학회.
- 옥현진(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문식성 교육 실행 양상」, 『작문연구』 23(0), 61-83, 한국작문학회.
- 윤수란 · 민연숙(2016), 『국어과 자유학기 진로탐색 연계 교과 수업 자료집』,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자유학기제 홈페이지).
- 이병환 · 권민석(2015), 「연구학교 사례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1(1), 51-7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수연 외(2015), 『자유학기제 교과별 수업 및 평가 사례집 —국어』, 연구보고서 No. CRM 2015-55-1, 한국교육개발원.
- 전은주(201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상과 과제: 화법」, 『국어교육학연구』 51(1), 35-62, 국어교육학회.
- 정영희 외(2016), 「자유학기를 겪어 본 교육주체들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라북도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4(3), 777-808,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Jeffers, G. (2013), *Transition Year. KRIVET*, 2nd career education international forum, pp. 1-42.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

전은주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현 상황에서 자유학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유학기제 수업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수업 개선을 위한 국어과 의사소통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면 국어과 시수가 감축이 되고 이로 인하여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 교과서와 수업 내용이 맞지 않음, 중요한 성취기준의 누락, 언어 수행 기회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습자가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에서 의사소통 수행 기회가 증가되었으며 학습자들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며, 의사소통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응답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학습자의 반응은 학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의사소통 활동 시 어려움 혹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수의 학습자가 토론, 토의, 대화의 경우 ‘의견 충돌 시 감정적 반응’을, 발표는 ‘자신감 부족’을, 면담의 경우 ‘경험 부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자유학기제 수업 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과 교수-학습의 변화 방향을 6가지 제시하였다.

핵심어 자유학기제, 자유학기, 국어교육, 듣기·말하기, 의사소통 교육, 의사소통 능력

ABSTRACT

Korea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to Improve Free Semester System

Jeon Eunju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issues of restructuring Korean curriculum for the free semester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free semester class and the learner's communication competence, given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has launched over the entire nation. It also suggested the ways to improvement for a better free semester class.

If the Korean curriculum is restructured for implementing free semester system, the number of lessons for Korean class is reduced. Besides, issues may arise in terms of overburdened class progress, discrepancy between the textbook and lecture, omission of important achievement criteria, and reduced opportunity for language performance.

The response to the survey showed that a majority of learners feel that free semester class provided more opportunities for speech communication and that their communication skill progressed significantly due to the free semester class. They also agree with the necessity of speech communication class. More over, above responses were interrelated. The responses of th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chools. The issues related with communication during the free semester class were emotional reaction in case of conflicting opinion during debate-discussion-conversation, lack of confidence during presentation, and lack of experience during interviewing.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present study presented six ways to improve the Korean teaching-learning, focused on the communication education for better free semester system.

KEYWORDS free semester system, free semester, Korean education, listening-speaking,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competence